

문필언어의 풍자적 해부

신랄한 풍자와 독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비어스(Ambrose Bierce)가 편찬한 「악마의 사전」(The Devil's Dictionary)은 상상을 초월하는 僞惡의 유머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다. 원래 「냉소가 용어집」(The Cynic's Book)이란 제목으로 출간됐던 것을 저자 자신이 증보한 이 책에는 '문필계의 해부학자'로 일컬어지던 비어스의 책과 문필에 대한 독특한 정의들이 다수 포함해 있어 특히 흥미를 끄는데, 다음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출전은 우신사판의 이동진 역 「악마의 사전」(1993).

교정원(proof-reader) 식자공이 남이 쓴 글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묵인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것을 더욱 난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만불손한 사람들.

문법(grammar) 맨주먹으로 성공한 사람이 빠지도록 그 출세가도의 군데군데에 친절하게도 파놓은 일련의 함정.

비평가(critic) 아무도 자기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

사전(dictionary) 언어의 자유로운 성장을 억제하여 그 언어를 탄력성 없는 것으로 고정시키고자 생각해낸, 문필에 관한 악랄한 조작.

역사(history) 대체로 악인인 지배자와 바보스런 군대에 의하여 야기되는, 대체로 대단치 않은 사건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록.

역사가(historian) 동서고금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실속 없이 뜬소문만 뱉고 다니는 사람.

인용(quotation) 남의 말을 잘못 되풀이하는 행위. 잘못 되풀이된 말.

일기(diary) 자기 생활 가운데 자신에 대해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한 것.

철학(philosophy) 시작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수많은 길로 이루어진 하나의 루트.

출판하다(publish) 문예 분야에서 비평가들의 공격표적의 기본요소가 되다.

취재기자(reporter) 진실에 도달하는 데 오직 추측으로써 하고, 언어의 폭풍으로 그 진실을 사망으로 흩어놓는 문필가.

표절(billingsgate) 먼저 발표된 창피스런 작품과 나중에 발표된 작품이 합성된 우연의 일치.

표절하다(plagiarize) 결코 단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다른 저작자의 사상이나 문장 따위를 채용하다.

학식(erudition) 속이 텅 빈 두개골 속에 털어넣은 책의 먼지.

활자(type) 문명개화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되고 있는 위험한 금속 파편.

거짓말쟁이(liar) 말하고 싶은 대로의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사. 본직은 어쨌든 저널리스트.

검열관(censor) 어떤 정부의 공무원으로 전체의 작품을 매장시키기 위해 고용되고 있다.

교성쇄(proof) 반쯤 요리된 원고.

독백(monologue) 귀를 안가진 혀의 활동.

로맨스(romance) 시장에서는 값을 정할 사람이 없기에 수요가 없는 상품.

미완성유고(fragment) 문학에서 저자가 역량이 없어 완성하지 못한 원고.

미학(aesthetics)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불유쾌한 진드기. 나무 진드기보다 질이 고약하다.

시(poem) 사랑, 기쁨, 비둘기, 키스. 이와 같이 기묘한 말의 농간. 그런저런 너절한 잡동사니가 우리로 하여금 '제발 그만, 이제 됐어'라는 큰소리를 내게 하며, 그리고 지나치게 과대한 용어를 나열한 것.

완곡한 표현(circumlocution) 아무 할 이야기도 없는 작가가 그 아무 할 얘기 없다는 것을 독자에게 조금씩 털어놓는 문예상의 기법.

요약(abridgement) 어떤 사람의 문학작품에 대한 짧은 줄거리. 그중에 요약하는 사람의 확신과 상반되는 점이 찍어 있는 대목은 지면 부족을 이유로 생략되고 있다.

인쇄물(print) 그 속에서 수많은 너절한 생각이 뿜내고 우쭐해서 확보하지만, 애당초 태어나지 않았던 못한 생각의 것털.

전기(biography) 졸자가 거물에 바치는 문학상의 상찬.

즉흥시인(improvisator) 시를 듣고 있는 청중보다 훨씬 더 행복감에 젖어 시를 쓰는 자.

투고자(contributor) 저널리즘에서는 휴지통의 단골손님.

추신(postscript) 급할 때는 그 부분만 읽어도 되는 숙녀들의 편지의 일부.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용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과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켰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빼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생명과 전기

신간!

THE BODY ELECTRIC

인체의 재생 · 치유 ·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서